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재발과 치료 경험

우주현¹⁾ · 김현례²⁾ · 현명선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 중독은 습관적인 음주행위와 음주에 대한 조절능력 상실로,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때로는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만성적인 질병이다(Kim, 2002).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적 위기로 실업자 증가, 가족해체 증가 등의 이유로 알코올 중독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Kim, 2004).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19세 이상 국민의 월간 음주율이 68.6%였는데, 2005년에는 72.6%, 2007년 73.5%로 증가추세에 있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Ministry of Healthcare and Welfare, 2008).

한편 알코올 중독은 치료율이 낮으며 재발률이 높다(Sung, Lee, Kim, & Lee, 2003). 입원 치료 후 3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재발률이 45%였으며(Bottlender & Soya, 2005), 1년 후에는 재발율이 약 60%로 보고되고 있어(Evren, Durkaya, Evren, Dalbudak, & Cetin, 2012; Moos & Moos, 2006; Witkiewitz & Marlatt, 2004),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재발예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질병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에 대해 Evren 등(2012)은 충동성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재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Buijn, Korzec, Koerselman과 Brink(2004)는 개인적인 특성, 약물 및 환경적인 자극 등이 관련이 있으며, Witkiewitz와

Marlatt(2004)는 자기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갈망, 대처양상, 정서상태, 대인관계 요인이 재발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Ji (2011)는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을 ‘불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음주를 다시하도록 하는 여러 사건의 연속’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재발을 가족력, 이중장애, 치료자 발생 등의 개인적 특성, 금주자기효능감, 동기 등의 심리적 특성, 자조모임 참여, 가족의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 특성이 관여한 복잡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Vaillant(1988)와 Kwon(2006)은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을 단지 치료가 실패한 결과(outcome)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삶의 한 과정(process)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관여된 각 개인의 독특한 삶의 경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구를 보면, 예측이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Demirbas, Ilhan, & Dogan, 2012; Ji, 2011), 재발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Evren, 등, 2012),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Bong & Lee, 2011; Vieten, Astin, Buscemi, & Galloway, 2010)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재발경험에 관한 연구는 Kang(2007)이 여성중독자를 대상으로 재발경험 연구를 한 것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에 관해 행해진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로 여러 변인들이 관련된 현상인 재발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재발은 다양한 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며(Bottlender & Soya, 2005), 재발은 하나의 결과(outcome)가 아

주요어 : 알코올 중독자, 재발 경험, 질적 연구

1)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3)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mhyun@ajou.ac.kr)

투고일: 2012년 10월 28일 수정일: 2012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30일

나라 과정(process)으로 환자가 재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Witkiewitz & Marlatt, 2004). 또한 Wilsnack, Vogelanz, Wilsnack와 Harris(2000)는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음주 행위를 좀 더 억제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성별에 따라 음주행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 알코올 중독자가 재발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환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질적 연구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며, 인간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문맥이나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공감적 이해를 통해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론이다(Kim, 등, 2005). 질적 연구 방법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대상자의 세계로 들어가 대상자가 가진 생생한 경험을 탐구하며 그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reswell, 1998). 이에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과 치료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본질을 발견하는데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는 재발과 치료 경험을 탐구하여 그 의미 및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과 치료경험에 함축된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고 재발 예방이나 회복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 재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가진 재발과 치료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밝히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재발과 치료 경험이 지닌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Colaizzi 분석방법은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지는 재발과 치료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K도에 소재한 K병원의 알코올 치료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재발한 알코올 중독환자로 총 7인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32-45세였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4명, 기혼이 1명, 이혼이 2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 중퇴나 대졸이 4명, 고졸 2명, 중졸이 1명이었다. 재발 횟수는 2회에서 18회였다.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K도에 소재한 K병원의 알코올 치료센터의 수간호사 및 부서장과 환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정신과 병동 및 알코올 치료 센터에 근무 경력이 15년, 정신간호학 강의 및 실습지도 경력이 5년인 연구진 중의 일 연구자가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를 행하는데 있어서 참여자 내부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진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적 태도를 가져야한다(Kim, 등, 2005).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현상에 대해 이미 지니고 있었던 판단이나 가치관 등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가 가진 주관성을 극복하고 연구결과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91)는 연구자가 연구현장에 오래 머무를 것, 동료 연구자로부터의 타당성 검토,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면담과정이나 분석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를 간호한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과 검토하였으며,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에 경험이 많은 정신과의사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 면담 때 마다 참여자에게 의미가 있거나 추후 확인이 요구되는 반응이나 그 밖의 의미있는 내용에 대해 메모를 하여 추후 면담이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진이 분석한 내용이 참여자들의 관점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돌아가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였으며, 면담 회수는 1회 ~ 3회였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40~50분 이었다. 면담을 하기 위해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간의 신뢰와 연구주체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질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참여자들이 편하게 느끼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면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상자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

를 하면서 라포형성을 하고자 하였다. 면담에서의 주요 질문은 “재발하면서 가지게 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였으며, 참여자가 표현하는 경험이나 반응에 따라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본 연구진이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함축된 내용에 관해 추후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그 의미를 명료화하여 확인하였다. 면담은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 수행의 경험과 알코올리즘 환자의 간호에 경험이 많은 3명의 연구진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질적 연구의 경험이 많은 정신간호학 교수와 알코올리즘 환자의 치료의 경험이 풍부한 정신과의사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면담과정 중에 연구진이 기록한 메모와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자료로 되돌아가 확인하면서, 본 연구 현상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 2단계: 참여자와 면담한 내용을 필사한 것을 읽으면서, 본 연구현상인 재발 및 치료 경험과 관련된 구절이나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파악하였다.
- 3단계: 의미있는 진술인 문장이나 구절을 숙고하면서 읽었으며, 그 진술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연구자의 언어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 4단계: 구성된 의미에서 유사한 것을 묶어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원자료로 돌아가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 5단계: 도출된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주제를 관심현상과 관련하여 철저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하였다.
- 6단계: 본 연구의 관심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하였다.
- 7단계: 본 연구의 관심현상에 대한 본질적 구조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참여자에게 본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어 그들의 관점에서 가진 생생한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진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나 자료는 비밀보장이 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녹음내용은 연구 분석 이후 즉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면담도중에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진 중 면담을 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3학점을 이수하였으며, 질적 연구 관련 학회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관한 학술적인 지식을 쌓았으며, 나머지 연구진은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 7명의 참여자에게서 나온 원자료에서 총 122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의미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읽으면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유사한 것을 묶고,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총 17개의 의미가 구성되었다. 17개의 구성된 의미를 다시 검토 및 확인하여 6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재발하면서 가지게 된 경험은 진정한 병 인식 부족,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힘의 부족, 음주충동을 이기지 못함,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짐,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짐, 자기성장의 발판이 됨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

● 주제 1. 진정한 병인식 부족

참여자들은 자신이 중독자임을 잊어버리고, 치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치료연계와의 끈을 놓아버리며, 단주에 대한 안이한 마음을 가진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이 중독자라는 인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복과의 최소한의 끈인 단주 모임이나 외래 치료 등 치료연계와의 끈을 놓아버리는 등 치료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단주에 대해 안이한 마음을 가져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등 진정한

<Table 1> Meanings and Themes in Relaps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Constructed meanings	Themes
Forgetting their own addiction Unable to find the meaning of treatment Feeling like controlling oneself	Lack of true insight
Lack of strength for coping to a hasty temper Defence of drinking behavior Self-justification Escape from real world	Lack of strength to live a life
Being preoccupied with drinking impulse Not resisting drinking impulse	Unable to overcome an urge to drink
Feeling ashamed of oneself toward others Being rejected from families	Being drawn away from others
Wallowing in self-pity Being driven to despair over oneself Feeling of having reached a dead end	Falling into the powerlessness and despair
Looking back on oneself More awareness of their own problems Promise for a better life	Being foothold of self-growth

한 병인식이 부족하였다.

• 중독자임을 잊어버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술을 마시는 곳에 가거나 술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잊어 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회복자 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스스로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참여자1).

내가 첫잔을 마셨던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나서요. 근데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사돈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잊어버렸는지 어땠는지도 몰랐었는데요. 그때 옆자리에 있던 동생이 자기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그때 자기 손을 보니까 술잔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요. 기억이 안나요(참여자4).

아마도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내가 10일 동안도 안 먹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 괜찮네. 지금쯤 한 병 정도 마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5).

참여자들은 퇴원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술 문제에 대해 점차 멀어져가는 자신을 느끼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지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다시 음주를 하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치료의 의미를 찾지 못함

모임에 가야하나? 또 갈 필요가 있나? 굳이 모임에 나갈 필요가 있나?... 그런데 거기 있을 때 사실 중독자라는 것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끈 같은게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임의 끈을 놓은 거예요. (참여자6)

다시 술을 마시면서 입원해서도 미리 술을 마시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요(참여자7).

알코올센터도 정기적으로 다녔었잖아요. 그렇게 4개월을 지냈는데 친구들과 스키장예를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유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자들은 치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끈을 놓아버리고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음

과거에는 이렇게 안됐어요. 과거에는 언젠가는 1년간 그냥 단주 했을 때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술 마시면 안된다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조절이 될 거 같았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다시 그랬죠(참여자4).

한잔 마셔보자 하고 마시고는 괜찮을 것 같았죠(참여자5)

저도 모르게 마셨는데, 그래도 될 것 같았어요.(참여자1)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치료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음주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서 단주에 대해 안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주제 2.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부족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거나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조급한 마음이 강해지지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재음주 하게 되었음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재음주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음주 행위를 방어하거나 음주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하였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겨 주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등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피하려는 마음이 있는 등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였다.

• 조급함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의 부족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의지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재발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조급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프로그램을 뛰쳐나올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참여자1)

그렇게 태도를 보이면 그래? 내가 안 먹고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셔주지. 라는 생각에 바로 나가서 술병 들고 왔죠.아무튼 그전에는 그렇게 바로 발끈해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술이 정말 무서운 거 같아요. (참여자5).

참여자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때 그때마다 바로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조급한 성격이 평소에도 있었음을 고백하였으며, 조절하지 못하고 조급한 성향이 강해질 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재음주하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음주행위에 대한 방어

거짓말에 도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석구석, 술병을 숨겨놓는데, 한번은 이런적도 있었어요. 형이 나에게 2병만 마시라고 했을 때였죠. 그래서 8병 마시고 2병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옷장에 숨겼어요. 나중에는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밖에는 2병만 내놓고 여기저기 숨겼어요. 결국

엔 몸이 못 이겨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형님이 방에 들어갔다가 옷장 문을 열자 술병이 와르르 쏟아진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참여자2).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전주에 아는 목사님을 뵈어야겠다 하면서 제 속으로는 2박3일 동안 술을 마셔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조절이 그렇게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고 안 마신척 하고 와야겠다고 결심을 한거죠(참여자5).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음주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 (음주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

생각이 교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레드와인은 술이 아니라 음료수다. 음료수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거죠(참여자5).

내가 마시게 되는 이유를 마치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핑계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시게 되는 이유를 마치 여러가지로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참여자3).

마시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하며 속이면서 합당한 이유를 찾고, 자기합리화에 몰두하였다.

• 현실세계로부터 도피

때때로 병원에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한 것이 불안해요. 재입원 하는 환우들을 보면 힘들면 한잔 마시고 들어오는 기분으로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또 다른 중독 같아요(참여자3).

근데 병원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 가면 이렇게 술 마신 사람을 반겨주네! 누가 있나! 직원들은 웃으면서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이나 누나나 가족들은 나를 차가운 눈초리로 보고 그러죠. 하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서글퍼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병원 중독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이게 병원 중독증이구나! 하하하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참여자4).

현실세계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극에 맞부딪히며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여러 자극들을 차단시키며 자신을 보호하는 병원을 좀 더 편안히 여기는 등 점점 현실세계에서 도피하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주제 3. 음주충동을 이기지 못함

참여자들은 말로는 술을 안마시겠다. 마셔서는 안된다고 다짐하고 퇴원을 했지만 어느 순간 술마시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일단 한번 바라게 되면 그 생각 속에 몰두하여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등 음주충동을 이기지 못하였다.

• 음주충동에 몰두하게 됨

결국은 마시고 싶어서 마신거예요. 주기적으로 그 느낌이 온다니까요? 술을 안 마시려고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공황이 와요. (참여자2).

그날 밤에 자는데 술 충동이 일었죠. 꺾히기 시작했죠(참여자5).

이와 같이 음주 충동이 있게 되면 그 충동을 참을수 없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 재음주하게 됨을 표현하였다.

• 음주 충동에 대항하지 못함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어요(참여자1).

한번 꺾히면 반드시 마셔야 되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먹으려고 해요.다시 술을 마시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건 머리의 한쪽에서는 내가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마시게 된 것에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참여자2).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이슬에 꺾혔어요. 한 병만 먹어보자.....그런데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중독자가 달리 중독자이겠어요? 슬슬 올라오는 거지.(참여자6).

이와 같이 음주 충동이 생겼을 때 대항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재음주하게 됨을 표현하였다.

● 주제 4.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짐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부끄러워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였으며, 가족으로부터도 거부당해 차츰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었다.

•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부끄러움

입원을 하고 싶는데 사람들 시선이나 가족들, 직원들 얼굴 환우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고민에 쌓이게 되었죠. 입원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시작하느냐, 병원에 들어가느냐. 생각을 했죠. 첫째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형제들 하고

있으면 사람이 요만해 저요(손톱을 조금 보여주며).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구석텅이에 처박혀 있다가 조용히 나와요(참여자4).

(고개를 숙이고) 불편하지는 않지만 사실 쑥쓰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참여자3).

그런데 바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뵙기도 그렇고 환자들 다시 만나기도 쑥쓰러운거예요(참여자5).

주위의 시선이 눈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위축됨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기를 망설이며 부끄러워하며 위축되어 타인으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었다.

•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함

누나는 저보고 나가버리래요. (쓸쓸하게 웃으며)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좀 속상했어요.(참여자1).

전화를 하고 집에 들러 짐을 좀 가져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어이없는 미소를 보이며). 정확히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참여자3).

퇴원을 앞두고 정리를 위해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언니가 위로 아래로 흘겨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시시겠지 하는 눈으로... 다시는 얼굴보지 말자. 뭐 내 눈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깐 너무 서럽고 서글프고 배신감도 느끼고...(참여자5).

어느 날인가 저한테 선을 긋더라고요. 알면서도 마치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가족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실 때뿐이고, 형제도 결국은 나를 끝까지 보살피지 않아요(참여자2).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지지체계가 되어줄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느끼며 배신감과 소외감, 서운함 등을 경험하여, 결국 가족을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멀어져서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주제 5.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짐

술을 다시 마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재발하여 다시 술을 마시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며, 결국 막다른 곳에 도달한 느낌을 느끼면서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자기연민에 빠짐

그렇지 뭐, 내가... 그리고 결국은 자기연민에 빠지게 되죠.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나 지금의 처지 등 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즐겨요. 그걸,, 그런 자기연민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않고 회상하면서 마치 내가 즐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술 마시는 핑계로...(자조하듯 웃으며)(참여자2).

이렇게 살아지면자라 하더라도 가족들 비유 맞추면서 몇 년은 살아지겠구나(참여자3).

참여자들은 재발한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술 마시는 핑계로 사용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술을 다시 마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신이 언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을 가졌다.

• (재음주하게 된) 자신에 대한 절망감

정신을 못차렸었어요..... 나는 안되는 놈이야. 라는 자포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발은 나에게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2).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안 믿어요. 술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런 유혹은 또 와요.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을 놔 버리면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도 믿지 말아야 해요(참여자6).

다시 술을 마실 거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 오려고 결심을 했죠. 병원에 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안됐다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술을 마시고 나니 걱정이 되고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술이 내 몸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4).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재발했었을 때 살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는 또 그때로 돌아가고 있구나. 가족들에게 문제야로 있다가 어느정도 참고 지내고 또 그걸 못참으면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참여자3)

재발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퇴원을 해야 하는데.. 술도 술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저런 것들이 저를 불안하게 하죠(참여자5).

음주충동과 유혹에 대항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자신에 대

해 우울해하며, 자신마저 믿지 못하는 등 재음주하게 된 자신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 막다른 곳에 다다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고 어떻게든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2).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돌봐줄 울타리는 없는 건데...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 되고 또 동생들이 나를 봐줄 것도 아닌데(참여자5)...

이것이 바로 바닥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적어놨어요(참여자6).

참여자들은 다시 음주하게 되어 그때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도달한 절박감을 경험하였다.

● 주제 6. 자기성장의 발판이 됨

참여자들은 비록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셨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또한 앞으로 퇴원을 해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하였다.

• 자신을 되돌아봄

인간관계나 혹은 내가 퇴원 후에 생활했던 것을 되짚어 보니... 아니예요. 제대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지만 만약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 다음에는 내가 하루 이틀이라도 안마시고 견뎌볼 생각 이에요(참여자1).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2).

그런데 쉽게 결심하는 만큼 쉽게 깨지고 진지하게 하지 못하니까 쉽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문제였죠. 진지하지 못하니까 문제였어요(참여자6).

참여자들의 재음주는 절망이나 자신이 쌓아놓은 것의 무너짐만이 아닌 스스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문제인식이 명확해짐

뭔가 한가지씩 얻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재발하게 된 것이 나의 어떤 부분인지 알아간다고 할까요?(참여자1)

어느 순간 왜 내가 이런 느낌이 들지? 라고 자문해 보고 사실은 술이 바로 문제였던 적이 많은 거예요(참여자3).

자신의 재음주 행위를 방어하거나 부정하였던 과거와 다르게 차츰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계기였음을 표현하였다.

-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다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고 내 생활을 찾아야죠(참여자2).

내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계획을 하니까 나의 술 문제가 더 가슴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참여자3).

오자마자 절차를 밟아서 다시 시작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 우리는 평생 자기를 관찰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끈을 안 놓칠려고 약을 들고 다니면서 자리가 바뀌면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조심한다고 하시더라고요(참여자4).

우선 다시 시작해야죠(참여자5).

그래요. 전 이렇게 쪽 같거든요. 계속 노력하면서 가면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참여자6).

재 음주하게 되어 바닥으로 무너졌지만 앞으로의 삶을 위해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재발의 원인을 찾아 퇴원을 해서 어떻게 실수 하지 않고 살 것인지에 대한 모색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과 본질적 구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재발과 치료 경험에 대해 철저한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새 자신이 중독자임을 잊어버리고, 치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끈을 놓아버리며, 단주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등 진정한 병인식이 부족하였다. 자신의 욕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거나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의 조급함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며, 재음주를 하게 되었을 때 음주행위를 방어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였으며, 현실세계보다는 병원이라는 환경이 오히려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등 현실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였다. 음주에 대한 충동이 생겼을 때에는 중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등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은 차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타인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하여 피하였으며, 가족들로부터도 거부당해 가족이나 타인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재음주하게 된 자신의 모습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며, 재음주하게 된 자신 모습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결국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며,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하는 등 재발을 자기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재발과 치료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진정한 병식이 부족하고, 음주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현실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가 자기성장의 발판이 되는 경험”으로 파악되었다.

논 의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재발과 치료 경험은 진정한 병 인식 부족,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힘의 부족, 음주충동을 이기지 못함,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짐, 무기력함이 절망감에 빠짐, 자기성장의 발판이 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주제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상호작용하면서 참여자들의 재발과 치료 경험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중독자임을 잊어버리고, 치료연계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술 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회복의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진정한 병식이 부족한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Park, Yu와 Oh(2000)의 알코올 센터에 입원하여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병식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병식이 형성된 환자가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발한 알코올리즘 환자들의 주된 문제가 병식 부족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알코올리즘 환자들의 병식형성은 치료단계의 첫 걸음이기(Kim, 1998), 이들을 위한 병식형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현실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

하였다. 즉 조급한 마음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힘이 부족하며, 음주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행동을 하였으며, 음주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하며,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피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한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Evren 등(2012)의 연구에서 충동성이 재발과 관련있는 성향으로 나타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욕구 충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위주의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im(2004)의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약한 자아로 인해 강한 열등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이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아의 힘을 강화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단주에 대한 결심을 하지만, 음주 충동이 생겼을 때 그 충동에 몰두하게 되며, 음주 충동에 대항하지 못하고, 재음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2)은 알코올 중독자의 재활의 초점은 술 없는 생활하기라고 하면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음주를 하도록 자극하는 고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 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기술이 부족하다면, 금주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되면서 음주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음주충동에 대한 유혹에 대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음주충동을 야기하는 개인내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재음주를 하면서 차츰 가족을 비롯한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고립되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피하거나 위축되었으며, 가족들도 참여자의 재음주로 거부하거나 관계를 차단하려고 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참여자들이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일코올에 대한 인식에 관해 질적 연구를 한 Chung 등(2009)의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만성화될수록 가족이나 친척 및 친구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이러한 격리는 환자들이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여, 알코올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지속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Kim(2004)도 대인관계에서의 실패감이 우울이나 불안 및 적개심을 야기하여 음주를 하도록 한다고 하여, 알코올환자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참여자들은 재음주하게 된 자신의 모습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경험하였으며, 재음주로 망가진 자신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끼며, 결국 막다른 곳에 도달한 느낌을 가지면서 무기력함

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Do(1999)의 연구에서도 알코올리즘 환자들의 절망감에 대해, 환자들이 변화에 대한 동기화가 되기 이전에 절망감이 지배적일 때 치료가 어려우며, 자살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경험하는 절망감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며,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발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절망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환자들이 치료와 회복에 대한 동기화가 되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재음주하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히 인식하면서 결국은 좀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kiewitz와 Marlatt(2004)는 알코올리즘 환자들의 재발 경로에 대해 한편으로는 원상태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경로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는데, 본 참여자들도 재발을 하여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이 무너지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재발한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부족했던 병 인식을 향상하고, 회복을 향한 희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의 재발 횟수가 2회에서 18회로 차이가 있었는데, 재발 횟수에 따른 재발경험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이에 재발 횟수에 따른 재발이나 치료경험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이나 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온 주제를 반영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한 추후 연구를 제시할 수 있어 연구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실무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돌보는 치료자에게 실질적인 중재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재발과 치료 경험에 대한 본질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Colaizzi(1978)의 방법을 적용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재발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진정한 병식이 부족하고, 음주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현실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가 자기성장의 발판이 되는 경험”을 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현실세계에서 부딪히는 자극이나 음주를 자극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재음주한 자신의 모습에 연민이나 절망감을 느끼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고립감을 느끼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재발한 경험 그 자체를 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향한 자기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알코올 중독 환자의 병식 개선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음주 충동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음주충동을 야기하는 개인내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재발한 알코올 중독 환자의 치료와 회족에 대한 동기화를 촉진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ong, E. J., & Lee, C. S. (2011). Effects of women focused relapse prevention program on abstinenc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in alcoholic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20*(1), 13-24.
- Bottlender, M., & Soya, M. (2005). "Outpatient alcoholism treatment : predictors of outcome after 3yea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80*(1), 83-89.
- Bruijn, C., Korzec, A., Koerselman, F., & Brink, W. (2004). Craving and withdrawal as core symptoms of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Nerves & Mental Disease, 192*(7), 494-502.
- Chung, B. Y., An, h. J., Byun, H. S., Lee, Y. N., Jeong, K. S., Kim, J. Y. et al. (2009). Recognition of alcohol in alcoholic in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8*(1), 11-20.
-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emirbas, H., Ilhan, I., & Dogan, Y. (2012). Ways of problem solving as predictors or relapse in alcohol dependent male inpatients. *Addictive Behaviors, 37*(1), 131-134.
- D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SAGE.
- Evren, C., Durkaya, M., Evren, B., & Dalbudak, E. (2012). Relationship of relapse with impulsivity, novelty seeking and craving in male alcohol-dependent inpatients. *Drug and Alcohol Review, 31*(1), 81-90.
- Ji, H. (2011). *Factors Influencing the Relapse Risk of Alcohol Depend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unju.
- Kang, P. S. (2007).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lapse experience of women alcohol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H. S.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typ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f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3*(2), 11-20.
- Kim, J. S. (1998). Understanding of recovery process of alcoholic dependent pati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19*(5), 304-312.
- Kim, K. B., Shin, K. L., Kim, S. S., Yoo, E. K., Kim, N. C., Park, E. K., et al. (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sa.
- Kim, S. G. (2002). Recent trends of rehabilitation in alcohol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8*(1), 3-12.
- Kim, J. S., Park, B. K., Yu, I. S., & Oh, M. K. (2000). Improvement of insight in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by treatment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21*(9), 1180-1187.
- Kwon, H. S. (2006). A study of the relapse factors of alcoholics: Strauss & Corbin Model.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and Psychosocial Treatment, 3*(1), 61-86.
- Lincoln, Y. S., & Guba, E. G. (1991).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Mental health business guide*. Seoul: Author.
- Moos, R. H., & Moos, B. S. (2006). Rates and predictors of relapse after natural and treated remission from alcohol use disorders. *Addiction, 101*(2), 212-220.
- Park, H. S., & Do, E. Y. (1999). A study about depression of the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8*(2), 399-410.
- Sung, S. K., Lee, H. K., Kim, H. O., Lee, K. H. (2003). A study of difference between insight in Inpatient alcoholic patients outpatient alcohol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7*(1), 60-68.
- Vaillant, G. E. (1988). What can long-term follow-up teach us about relapse and prevention of relapse in addiction?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3*(10), 1147-1157.
- Vieten, C. Astin, J. Buscemi, R., & Galloway, G. (2010). Development of an acceptance-based coping intervention for alcohol dependence relapse prevention. *Substance Abuse, 31*(1), 108-116.
- Wilsnack, R. W., Vogeltanz, N. D., Wilsnack, S. C., & Harris, R. (2000). Gender difference in alcohol consumption and adverse drinking consequences: Cross-cultural patterns. *Addiction, 95*(2), 251-265.
- Witkiewitz, K., & Marlatt, G. A. (2004). Relapse prevention for alcohol and drug problems. *American Psychologist, 59*(4), 224-235.

The Lived Experience of Relapse and Treatment Among the Alcoholics

Woo, Ju-Hyun¹⁾ · Kim, Hyun-Lye²⁾ · Hyun, Myung-Sun³⁾

1) Assistant Professor, Kyung Dong University,

2) Part time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relapse and treatment among the alcoholics. **Method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even people with inpatient alcoholics at the alcohol treatment center at K hospital in K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via in-depth interviews from March to September, 2012 and analyzed using Colazzi's framework. **Results:** Six themes and seventeen meanings were formulated for the relapse and treatment experiences of participants with alcoholism. Six themes were 'Lack of true insight', 'Lack of strength to live a life', 'Unable to overcome an urge to drink', 'Being drawn away from others', 'Falling into the powerlessness and despair', and 'Being foothold of self-growth'.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revealed the relapse experiences among alcoholic patients. Therefore, the findings can provide the framework and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relapse prevention program for alcoholic patients. In addition, practitioners in the treatment center or hospital need to consider their relapse and treatment experience.

Key words : Alcoholics, Relapse, Lif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yun, Myung Su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5,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7014 Fax: 82-31-219-7014 E-mail: mhyun@ajou.ac.kr